통일신보

무 소 속 대 변 지 제24호 【루계 제2492호】

주체107
(2018)년 6월
2일
토요일
음력 4월 19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력사적인 제4차 북남수뇌상봉 진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문재인대통령과 또다시 상봉하시고 회담을 하시였다

력사적인 제4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주체107(2018)년 5월 26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통일각에서 전격적으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판문점 통일각에 나오시여 문재인대통령과 상봉하시고 회담을 하시였다.

북남관계의 새 출발과 화해단합의 새시대를 열어놓은 평화의 상징으로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였던 력사의 땅 판문점에서 29일만에 북과 남의 최고수뇌분들의 뜻깊은 만남이 또다시 이루어졌다.

회담장인 판문점 통일각에는 문재인대통령을 영접하기 위하여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정렬해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판문점분리선을 넘어 우리측 지역 통일각에 도착한 문재인대통령을 따뜻이 맞이하시고 상봉의 인사를 나누시였다.

두 수뇌분들께서는 한달만에 력사적인 장소에서 또다시 력사적인 상봉을 하게 된 기쁨과 반가움을 금치 못하시며 굳은 악수를 나누시였다.

회담에 앞서 문재인대통령은 판문점 우리측 지역 방문을 기념하여 통일각 방명록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위원장과 함께! 문재인》이라는 글을 남기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와 문재인대통령은 력사적인 제4차 북남수뇌상봉을 기념하여 굳게 손을 잡고 뜻깊은 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들과 일일이 악수하시며 반가움을 나누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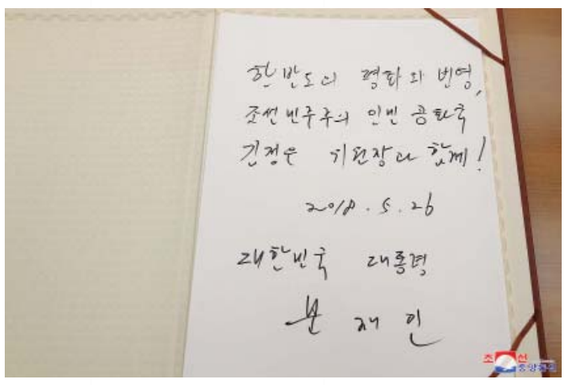
이어 **김정은**원수님과 문재인대통령 사이의 회담이 진행되였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김영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참가하였다.

남측에서는 서훈 국가정보원 원장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는 제3차 북남수뇌상봉에서 합의된 판문점선언을 신속히 리행해 나가며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과 현재 북과 남이 직면하고있는 문제들, 조미수뇌회담의 성공적개최를 위한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진행되였다.

(2면으로 계속)



력사적인 제4차 북남수뇌상봉 진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문재인대통령과 또다시 상봉하시고 회담을 하시였다

(1면에서 계속)

김정은원수님께서와 문재인대통령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열망이 담긴 판문점선언이 하루빨리 리행되도록 쌍방이 서로 신뢰하고 배려하며 공동으로 노력해나가야 한다는데 대해 의견을 같이하시였다.

북남수뇌분들께서는 북남고위급회담을 오는 6월 1일에 개최하며 련이어 군사당국자회담, 적십자회담을 비롯한 부문별회담들도 가속적으로 추진해나갈데 대한 문제들을 합의하시였다.

북남수뇌분들께서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나갈데 대한 립장을 표명하시며 앞으로 수시로 만나 대화를 적극화하며 지혜와 힘을 합쳐나갈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6월 12일로 예정되여있는 조미수뇌회담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문재인대통령의 로고에 사의를 표하시면서 력사적인 조미수뇌회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피력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미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을 위하여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나가자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와 문재인대통령은 회담에서 론의된 문제들에 대하여 만족한 합의를 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문재인대통령과 뜨겁게 포옹하시고 다시 만날 날을 약속하시며 작별인사를 나누시였다.

북과 남의 최고수뇌분들께서 격식과 틀이 없이 마음을 터놓고 중대한 현안문제들에 대하여 서로의 견해를 청취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신 이번 상봉은 북남관계발전에서 새로운 장을 열어놓는 또 하나의 력사적인 계기로 된다.

민족의 화해단합, 평화번영의 상징으로 력사에 아로새겨진 판문점에서 또다시 진행된 제4차 북남수뇌상봉은 우리 겨레모두에게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안겨주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성과적으로 진행된것과 관련하여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레바논공화국 대통령, 몽골 대통령, 꽁고민주주의공화국 대통령, 미크로네시아련방국가 대통령, 몽골민주당 위원장, 몽골인민혁명당 위원장, 로씨야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 벌가리아공산주의자동맹 명예위원장, 스위스공산당 총비서, 이딸리아통일공산당 총비서, 수단민족움마당 위원장, 세네갈독립로동당 총비서, 베네수엘라 통일된 좌익당 련방정치비서국 총조정자가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또한 에짚트자유사회주의자당 부위원장과 국제김일성상리사회, 국제김정일상리사회 서기장,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서기장, 세계평화위원회 위원장,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 사무국장,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 리사를 비롯하여 중국, 로씨야, 몽골, 캄보쟈, 파키스탄, 끼쁘로스, 일본, 단마르크, 벨라루씨, 스위스, 이딸리아, 에스빠냐, 리비아, 에짚트, 브라질, 베네수엘라, 뻬루, 에꽈도르의 정계, 사회계, 경제계의 고위인사들과 국제기구, 주체사상연구조직, 조선통일지지 및 친선단체 대표들이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축전과 축하편지들에서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판문점선언이 채택된것과 관련하여 가장 열렬한 축하와 따뜻한 인사를 드리였다.

이번 상봉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비범한 지략과 대용단에 의하여 마련된 력사적인 사변이며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하고 의의있는 계기로 되였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강국건설과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성과를 이룩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남조선각계가 칭송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칭송의 목소리가 력사적인 제4차 북남수뇌상봉을 계기로 남조선각계층속에서 높이 울려나오고있다.

남조선각계층은 김정은위원장께서 《한》미련합공중전투훈련과 트럼프의 북미정상회담취소발언 등으로 남북관계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북미관계가 소용돌이치고있던 시기에 제4차 남북정상회담을 전격적으로 단행하시여 남북대화는 다시 순풍을 타게 되였으며 북미정상회담도 예정대로 열릴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김정은위원장은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면서 남북관계개선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종횡무진하고있다.》, 《남북정상회담정례화를 뛰여넘는 극적인 번개만남을 통해 앞으로 북남관계가 상상할수 없는 더 큰 파격으로 이어질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반도에 불어오던 찬바람을 순간에 날려보내고 남북관계개선과 북미정상회담의 불씨를 되살려놓았다.》, 《판문점선언리행에 대해 반신반의하던 일각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놓았다.》고 평하였다.

남조선각계층은 이번에 김정은위원장께서 문재인대통령을 극진히 배려하는 숭고한 동포애적풍모를 보여주시였다고 감동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의전이 대폭 축소된 실무형회담이였지만 북은 통일각입구에 의장대를 정렬시키는 등 깍듯한 례의를 갖추어 문재인대통령을 맞이하였다고 하였다.

특히 김정은위원장께서는 문재인대통령이 통일각에서 방명록을 남기자 박수를 크게 쳐주시면서 기뻐하시였고 회담전기간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이끄시였다고 하였다.

회담을 마친 후 김정은위원장께서 문재인대통령과 뜨겁게 포옹하시면서 작별의 인사를 나누고 손을 흔들며 배웅하시는 모습은 전세계에 민족의 정과 힘이 얼마나 강렬한가 하는가를 뚜렷이 보여준 력사적인 장면이였다고 주장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용원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현지에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김수길 륙군대장,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인 손철주 륙군상장, 인민무력성 부상인 김정관 륙군중장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지휘부의 지휘관들, 국무위원회 설계국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오래전에 벌써 세 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해양국의 체모에 맞게 세계적인 해안관광도시를 갈마반도에 꾸리실 휘황한 설계도를 무르익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신년사에서 군민이 힘을 합쳐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을 최단기간내에 완공할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의 원대한 구상을 높이 받들고 동해의 명승지에 시대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기념비적 창조물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 한마음한뜻으로 총궐기해나선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은 낮과 밤이 따로없는 맹렬한 격전을 벌려 짧은 기간에 지대정리와 로반성토, 하부망공사를 질적으로 끝내고 모든 건축물들에 대한 골조공사를 다그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명사십리 해변가를 따라 각양각이한 건축물들이 키돋움하며 솟아오른 건설장전경을 바라보시며 불과 몇개월사이에 정말 많은 일을 해제꼈다고 치하하시며 건설자들을 고무격려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하루하루가 몰라보게 비약하고 전진하는 이 땅에서 려명신화가 창조되던 시기는 이제는 먼 옛일처럼 되여버렸다고 하시면서 기적에서 더 큰 기적에로 한계를 모르고 줄달음치는 여기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에서는 또다시 새로운 건설기적이 일어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건설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공사규모와 진척정형, 자재와 설비보장대책 등 건설전반실태를 료해하시고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을 다그쳐 끝내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론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건재생산부문을 비롯하여 전국의 련관단위들에서 증산투쟁, 창조투쟁을 힘있게 벌려 건설장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 마감건재품들을 공사에 지장없이 보장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세상에 둘도 없는 우리 식의 해안도시로 훌륭히 꾸려 우리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향유하도록 하자는 것이 당의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을 명년도 태양절까지 완공할데 대하여 지시하시였다.

전체 군인들과 건설자들은 흙먼지 자욱한 건설장에까지 찾아오시여 따뜻이 고무격려해주시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을 정해주신 기일안에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함으로써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질풍노도치는 주체조선의 본때와 기상을 다시한번 힘있게 과시할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로씨야련방 외무상을 접견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5월 31일 백화원영빈관에서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로씨야련방 외무상 쎄르게이 라브로브를 접견하시였다.

로씨야련방 외무성 부상 이고리 모르굴로브, 우리 나라 주재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 알렉싼드르 마께고라, 로씨야련방 외무성 대외정책계획국 국장 올레그 스께빠노브, 로씨야련방 외무성 순회대사 올레그 부르미스뜨로브, 로씨야련방 외무성 아시아1국 부국장 이고리 싸기또브가 함께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외무상과 반갑게 상봉하시고 따뜻한 인사를 나누신 다음 일행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라브로브 외무상과 일행의 우리 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시고 친선적인 담화를 나누시였다.

석상에서 라브로브외무상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보내온 로씨야련방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대통령의 친서를 정중히 전해드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따뜻하고 훌륭한 친서를 보내준 뿌찐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하시고 대통령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시였다.

담화에서는 최근 세계적인 관심사로 되고있는 조선반도와 지역의 정세흐름과 전망에 대한 조로 최고지도부의 의사와 견해가 교환되였으며 두 나라 정치경제협조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키고 긴밀히 협력해나가기 위한 문제들이 론의되였다.

라브로브외무상은 조선이 북남, 조미관계를 잘 주도해나가며 실천적인 행동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함으로써 조선반도와 지역정세가 안정국면에 들어선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면서 일정에 오른 조미수뇌회담과 조선반도비핵화실현을 위한 조선의 결심과 립장을 로씨야는 전적으로 지지하며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반도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고 일관하며 확고하다고 하시면서 조미관계와 조선반도비핵화를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세하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각자의 리해에 충만되는 해법을 찾아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며 효률적이고 건설적인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해결이 진척되기를 희망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담화에서는 또한 전략적이며 전통적인 조로관계를 앞으로도 쌍방의 리익에 부합되고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계속 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두 나라사이의 외교관계 설정 70돐이 되는 올해에 고위급래왕을 활성화하고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를 적극화하며 특히 조로 최고령도자들사이의 상봉을 실현시킬데 대하여 합의를 보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라브로브 외무상과 훌륭한 대화를 나누면서 로씨야지도부의 립장과 의중을 확인하고 새로운 정치적 및 전략적호상신뢰관계를 구축할수 있게 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담화는 시종 친선적이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본사기자

력사의 새시대를 힘있게 추동하는 탁월한 령도

조선반도의 평화번영과 통일을 향한 새로운 력사의 전진은 줄기차게 이어지고있다.

온 세상을 뒤흔들어놓은 4월의 격정과 환희의 환호성이 그대로 메아리쳐오는 속에 또다시 력사적인 판문점수뇌상봉과 회담이 전격적으로 진행되였던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판문점분리선을 넘어 통일각에 도착한 문재인대통령과 감격적인 상봉을 하시였다. 력사적인 장소에서 또다시 진행된 북남수뇌분들사이의 회담에서는 판문점선언을 신속히 리행해나가며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과 현재 북과 남이 직면하고있는 문제들, 조미수뇌회담의 성공적개최를 위한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와 문재인대통령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열망이 담긴 판문점선언이 하루빨리 리행되도록 쌍방이 서로 신뢰하고 배려하며 공동으로 노력해나가야 한다는데 대해 의견을 같이하시였으며 회담에서 론의된 문제들에 대하여 만족한 합의를 보시였다.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력사에 또 하나의 빛나는 장을 기록한 5월의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신 특출한 정치실력과 확고부동한 통일의지가 안아온 경이적인 사변이다.

그이께서는 력사적인 제3차 북남수뇌상봉과 4.27선언으로 민족의 화해단합과 자주통일의 새 전기를 펼쳐주시였으며 또다시 전격적인 수뇌상봉을 마련하시여 온 겨레에게 판문점선언리행에 대한 크나큰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시고 조국통일운동에 커다란 활력을 부어주시였다.

《새로운 력사는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 력사의 출발점에서

김 정 은

2018. 4. 27》

이라는 빛나는 친필로 민족의 평화번영과 통일로 향한 새 력사의 출발을 내외에 엄숙히 선언하시고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채택하도록 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날로부터 불과 29일만에 판문점에서 또다시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라는 력사적사변을 마련해주시였으니 우리 겨레가 어찌 격정에 눈굽을 적시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일단 하자고 선포하시였으면 전광석화와 같은 비상한 속도로 전격적으로 해제끼시고 설사 전진도상에 역풍이 몰아친대도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단호히 맞받아 나아가시는 천출명장의 담력과 의지, 기존관례에 구애됨이 없이 격식과 틀을 깨고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시는 절세위인의 특출한 정치실력과 풍모에 온 겨레가 감동과 매혹을 금치 못하고있다.

력사적인 제3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에서 판문점선언을 채택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민족의 화해단합을 위한 첫 실행조치로 조선반도에 존재하는 두개의 시간을 하나로 통일시켜주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정력적인 대외활동과 신묘한 지략으로 조선반도의 평화번영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해놓으시였다.

평화번영의 새로운 력사는 전진하고있다.

민족의 운명과 조선반도의 평화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지니시고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칭송의 목소리는 삼천리와 온 행성을 진감시키고있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도 《김정은위원장님은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면서 북남관계개선과 조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종횡무진하고있다.》, 《북남정상회담정례화를 뛰여넘는 극적인 번개만남을 통해 앞으로 북남관계가 상상할수 없는 더 큰 파격으로 이어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고 저마다 격정을 터치였다.

지금 평화번영의 새로운 력사의 흐름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확고히 주도하고계신다.

그이를 모시여 민족의 앞길에는 언제나 격동적인 사변들과 밝은 미래가 기약되여있다.

최명일

북남관계발전을 추동하는 력사적사변

북남관계의 새 출발과 화해단합의 새시대를 열어놓은 평화의 상징으로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였던 력사의 땅 판문점에서는 29일만에 북과 남의 최고수뇌분들의 뜻깊은 만남이 또다시 이루어졌다.

북남수뇌분들사이의 회담에서는 제3차 북남수뇌상봉에서 합의된 판문점선언을 신속히 리행해나가며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과 현재 북과 남이 직면하고있는 문제들, 조미수뇌회담의 성공적개최를 위한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친히 구상하시고 마련하신 제4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은 판문점선언의 확고한 리행으로 북남관계발전과 조선반도평화번영의 흐름을 더욱 가속화하도록 하는 특기할 력사적사변이다.

이번 판문점수뇌상봉과 회담에서 북남수뇌분들께서는 임의의 시각에 격식과 틀이 없이 마음을 터놓고 중대한 현안문제들에 대하여 서로의 견해를 청취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시여 북남대화력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천리혜안의 예지와 비범한 정치실력으로 력사의 땅 판문점에서 또다시 전격적으로 진행하신 제4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은 지금 온 겨레와 전세계를 대충격과 격동으로 끓어번지게 하고있다.

남조선의 각계층은 이번 력사적인 상봉과 회담을 《남북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 《세간의 상상력을 뛰여넘는 파격적인 회담》, 《판문점 번개회담》 등으로 격찬하면서 적극 지지환영하고있다.

전세계의 언론들도 북남수뇌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장소와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전격적으로 만날수 있다는것이 놀랍다고 하면서 이번 상봉소식을 대서특필하고있다.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여 세계가 보란듯이 북남관계를 활력있게 전진시키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력사를 써나가려는 것은 공화국의 확고부동한 립장이고 의지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동결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북남관계대전환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이 북남관계개선방침에는 북과 남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시려는 절세위인의 확고부동한 결심과 의지, 북과 남이 주인이 되여 군사적대결과 불신을 해소하고 민족공동의 안녕과 조선반도평화를 수호하시려는 그이의 확고한 평화애호리념과 뜨거운 민족애가 어려있다.

절세위인의 뜻을 받들어 공화국이 새해정초부터 련이어 취한 주동적인 조치들과 성의있는 노력에 의하여 북남사이에는 화해와 관계개선의 따뜻한 봄이 찾아오게 되였다.

남조선에서 진행되는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민족의 대사로 여기고 잘 도와주기 위해 공화국은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태권도시범단 등 대규모사절단을 파견하여 북남관계개선을 추동하고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열기를 드높였다. 특히 공화국의 고위급대표단은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개막식에 참가하고 남조선대통령을 만나 경애하는 원수님의 친서를 전달하였으며 그이의 뜻을 구두로 전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평양을 방문한 남조선대통령의 특사대표단 성원들을 접견하시고 허심탄회한 담화를 나누신것도 북남관계를 전진시키고 자주통일을 앞당겨오려는 공화국의 립장과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가 하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력사의 땅 판문점에서의 제3차 북남수뇌상봉과 제4차 북남수뇌상봉은 바로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이 땅우에 기어이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민족애, 드팀없는 자주통일의지의 발현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민족분렬의 비극이 짙게 드리워있는 판문점에서 민족과 통일을 위한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심으로써 대결과 분렬의 상징이였던 판문점은 이제 민족의 화해단합, 평화번영의 상징으로 되였다.

5.26판문점상봉은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이 아무리 악랄하고 주변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번영을 위한 길을 힘있게 열어나갈수 있다는것을 내외에 다시금 힘있게 과시하였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나갈 때 민족자주통일의 력사적위업은 앞당겨 성취될것이다.

최 영 옥

만상

화창한 봄계절의 환희

봄.

이 땅에 봄계절은 해마다 찾아오고 누구나 맞고보내지만 올해의 봄은 류달리도 겨레의 가슴을 들끓게 해주고있다.

북남관계의 새 출발과 화해단합의 새시대를 열어놓은 력사의 땅 판문점에서 29일만에 북과 남의 최고수뇌분들의 뜻깊은 만남이 또다시 이루어졌다는 소식에 온 강토가 끝없는 봄의 환희로 끓어번지고있다.

참으로 어제와 오늘이 그대로 흥분과 격정으로 설레이고 래일에 일어날 또다른 사변에 가슴들먹이는 환희의 계절이다.

장장 70여년세월 온갖 풍운을 맞고보낸 쓰라린 아픔을 화창한 4월의 봄계절과 더불어 흩날려버리시며 분렬과 고통, 대결과 적대의 상징으로 되여온 판문점에 새겨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거룩한 령도의 자욱자욱은 우리 겨레모두에게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안겨주고있다.

참으로 분렬사상 처음으로 판문점에서 진행된 4월의 북남수뇌상봉은 반세기이상 하나의 강토를 둘로 가르고 8천만겨레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러온 원한의 분리선을 순간에 허물어버린 일대 장거였고 불신과 대결의 악순환으로 멍들었던 겨레의 가슴에 통일봄맞이의 환희를 가져다준 재생의 빛이였다.

그 희열이 아직도 충천한데 이번에 또다시 이루어진 북남수뇌분들의 판문점상봉은 과연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것은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것을 말해준다.

북과 남을 가르는 분렬의 장벽이 무너져내리기 시작했고 응어리졌던 가슴들이 봄날의 눈석이마냥 풀려지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북과 남의 최고수뇌분들께서 격식과 틀이 없이 마음을 터놓고 중대한 현안문제들에 대하여 서로의 견해를 청취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신 이번 상봉이야말로 이 땅에 도래한 화해와 단합의 화창한 봄을 보게 하고 평화와 통일의 열매가 한껏 무르익는 풍요한 가을을 그려보게 해주고있다.

한민족을 둘로 갈라놓고 분렬의 쓰라린 아픔을 강요하던 판문점의 분리선이 이제는 더이상 우리 민족의 통일지향을 가로막지 못하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직접 분렬의 장벽을 허물고 문재인대통령과 수시로 마주앉으시여 민족의 중대사를 론의하시는 파격적인 모습에서 온 겨레는 다시한번 그이의 위인적풍모와 걸출한 령도력에 대하여 심장으로 느끼게 된다.

지난 4월의 력사적인 판문점수뇌상봉에서 오늘 우리의 만남에 대한 북남인민들의 기대가 큰데 꼭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자고, 앞으로 수시로 만나고 오가면서 마음을 합치고 의지를 모아서 걸린 문제들을 풀어나가자고 하시면서 내가 오늘 넘어선 분단선이 높지도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보면 없어지게 될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실 때 우리 겨레의 가슴마다에 얼마나 뜨거운 격정이 소용돌이쳤던가.

민족의 화해단합, 평화번영의 상징으로 력사에 아로새겨진 판문점에서 또다시 진행된 제4차 북남수뇌상봉은 우리 겨레모두에게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안겨주고있다.

참으로 올해의 봄계절은 류달리도 따스하고 화창하다.

올해의 봄이 너무도 좋아 풍요한 가을이 더욱더 그리워진다.

김 명 성

수필

판문점도보다리에 대한 생각

제 나이 어느덧 여든고개를 넘어섰습니다.

예로부터 늙은이의 추억은 마치 잔잔한 호수가와도 같이 일상의 련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의 80여생의 년륜을 담은 추억의 배가 거세찬 폭풍을 안고 격정속에 분과 초를 보내게 한 위대한 사변이 일어났습니다. TV를 통하여 력사적인 제3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된다는 보도가 전해졌던것입니다. 보도를 접한 그날 저는 빨간 령장을 단 홍안의 시절 판문점초소에 복무의 첫 자욱을 남기던 그날로부터 제대배낭을 메고 떠나던 그 모든 날과 달들이 가지가지의 하많은 추억으로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판문점이 어떤 곳인지 너무나도 잘 알기때문이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4월 27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태양의 눈부신 광휘를 뿌리시며 판문각앞에 나서시였을 때 온 나라 인민들이 그러하듯이 저의 마음도 격정으로 높뛰기 시작하였습니다.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활달한 걸음으로 계단을 내리시여 남측지역으로 향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남조선대통령과 뜨겁게 포옹하시고 판문점분리선으로 갈라진 북과 남을 자유롭게 오가시며 저주로운 민족분렬의 비극의 상징을 한순간에 허물어버리시는 그이의 모습을 우러르는 저의 눈가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추억의 눈물속에, 격정의 파도속에 방송원의 격조높은 음성을 들으며 화면을 주시하던 저의 눈가를 굳어지게 하는 화폭이 펼쳐졌습니다.

《4월 27일 시종 이날은 오랜 세월 얼어붙었던 북남사이에 따뜻한 봄의 기상을 알리는 의의깊은 날로 력사에 새겨질것입니다.

정전협정직후 중립국감독위원회 위원들이 판문점지역을 드나들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되였다고 하는 이 도보다리가 확장된 곳에 있는 군사분계선 표식물…》

방송원의 《도보다리》라는 해설에 저의 두눈이 확 커졌습니다.

가만 《도보다리》?!… 아니 저 다리가 아직도 있단 말인가…

둔덕을 내려서며 ㄴ자로 꺾인 다리, 북측지역으로 향한 다리의 끝에 군사분계선 표말이 서있는 저 다리.

전쟁의 마지막해 4월에 열일곱나이로 조선인민군 군복을 입은 제가 신병훈련을 마치고 전승의 축포와 함께 판문점에 배치되여 경계근무의 나날을 보낸 곳이 바로 저 도보다리, 군사분계선표말앞에 있는 초소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남측대통령과 함께 그 녹이 쓴 군사분계선표말을 보시며 대화를 나누시는 화면을 바라보는 저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도보다리, 그것은 다리가 아닌 다리였습니다.

정전직후 중립국감독위원회 성원들이 숙소에서 판문점으로 드나드는 통로를 위해 늪지대에 말뚝을 박고 세운 목조다리여서 그들이 지나다닐 때에는 삐꺽거리는 소리가 멎을새 없었고 더우기는 전쟁시기 불발탄들이 1년이 멀다하게 다리주변에서 터져 위험천만하기 그지없는 곳이였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느라니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오직 한분, 우리 민족의 운명의 전부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 위험천만한 곳에까지 나가시다니. …

심장은 졸아들었는데 방송원의 목소리는 더 크게 공명되여 울렸습니다.

《북남간 대립의 상징이였던 군사분계선의 표식물 바로 앞까지 단 두분이 나란히 걸으며 산책하신다는것만으로도 이미 이 땅에는 평화의 봄이 깃들고있으며 대결의 과거를 딛고 진정한 화해와 번영의 새로운 미래가 열리고있음을 뜻하고있는것입니다.

세기를 이어오는 기나긴 세월 국토량단과 민족분렬로 응어리진 겨레의 아픈 상처를 가시려 마음쓰시며 평화번영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

우리 8천만겨레의 위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원수님.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위험한 길이라 해도 서슴없이 나서시는 우리 원수님의 강인담대한 배짱과 결단이 있어 이 땅에 통일의 봄이 온것입니다. 분렬의 력사를 밀어내며 통일의 새 력사가 펼쳐지고있는것입니다.

흰서리가 이 머리를 뒤덮었지만 통일을 락관하는 저의 심장은 불을 안은듯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이 땅에 통일의 새 아침이 밝아오고있음을, 우리 후손만대의 휘황한 미래가 펼쳐지고있음을 우리는 산 현실로 똑똑히 보고있습니다.

이 땅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밝은 미래를 펼쳐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이름없는 전쟁로병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 축원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전쟁로병 김 순 제

판문점선언에 대한 지지기운 고조

남조선에서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지지찬동하면서 그의 철저한 리행을 요구하는 각계의 다양한 활동들이 적극 벌어지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통일인사들과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민중민주당,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가협 량심수후원회 등 각계 단체 성원들이 참가하는 민족자주통일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판문점선언지지, 리행》, 《대북적대정책폐기》, 《조미평화협정체결》, 미국과의 《동맹해체》 등의 구호를 힘차게 웨치며 자주통일의지를 다지였다.

그들은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은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에 이은 통일의 새로운 강령적 좌표이며 오랜 분렬과 대결의 력사를 종식시키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번영의 새시대,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나갈 통일의 리정표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지금의 정세가 지난 70여년동안 우리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방해하고 내정간섭과 전쟁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해온 외세에 대한 규탄과 반대의 함성을 더 크게 낼것을 요구하고있다고 하면서 외세의 반통일적인 간섭과 전횡을 완전히 청산하는 투쟁을 완강하게 지속적으로 벌려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대회에서는 민족자주선언이 채택되였다.

남조선의 단군민족통일협의회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을 따라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갈것을 호소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기자회견장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는 통일을 원합니다.》라고 쓴 선전물들을 든 사람들로 차넘쳤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조선민족의 한성원이라면 누구나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인 판문점선언을 적극 지지옹호하고 그 리행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라고 하면서 우리 민족의 앞길에 밝은 서광을 비쳐준 선언을 이 땅우에 하루빨리 현실로 꽃피우자고 호소하였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론평을 발표하여 판문점선언의 적극적인 리행을 요구하였다. 단체는 론평에서 판문점선언을 제대로 리행하려는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면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선언의 제반 사항들이 신속히 리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사기자

승리에서 더 큰 승리에로

최근 공화국에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고암—답촌철길이 완공된데 이어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이 힘있게 추진되는 등 새로운 건설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되고있다.

이번에 완공된 고암—답촌철길로 말하면 고암과 송전반도를 련결하는 해상철길로서 나라의 철도운수부문과 수산업발전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조선로동당의 구상과 결심이라면 산도 떠옮기고 바다도 메울 불같은 일념을 안고 떨쳐나선 건설자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불리한 조건과 난관을 사생결단의 의지와 자력갱생의 투쟁기풍으로 뚫고 나가며 석전만의 날바다를 횡단하는 해상철길다리를 훌륭히 건설하고 공화국의 철길건설력사에서 일찌기 없었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이 철길이 완공됨으로써 답촌어촌지구건설을 빨리 다그치고 어촌지구에서 잡은 물고기들을 원만히 수송할수 있는 대통로가 마련되게 되였다.

하기에 완공된 고암—답촌철길을 현지에서 료해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정말 훌륭하다고, 마치 미술작품을 보는것 같다고, 당에서 관심하던 문제가 또 하나 풀렸다고, 대단히 만족하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세상을 놀래우는 건설성과들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에서도 창조되고있다.

동해의 명승지에 시대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창조물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 한마음한뜻으로 총궐기해나선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은 낮과 밤이 따로없는 전투를 벌려 건설에 착수한지 몇달 안되는 짧은 기간에 지대정리와 로반성토, 하부망공사를 질적으로 끌내고 모든 건축물들에 대한 골조공사를 다그치고있다.

얼마전 이곳 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기적에서 더 큰 기적에로 한계를 모르고 줄달음치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에서 또다시 새로운 건설기적이 일어나고있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오늘 하루하루가 몰라보게 달라지고 비약하는 공화국의 기적과도 같은 현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수산업발전에 유리한 고암지구와 답촌지구, 천아포일대에 대규모적인 어촌지구를 일떠세우실 웅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그 선행공정으로서 고암—답촌철길을 현대적으로 건설하도록 하시였으며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풀어주신분도, 세계적인 해안관광도시를 갈마반도에 꾸리실 원대한 설계도를 무르익히시고 군대와 인민이 힘을 합쳐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을 최단기간내에 완공할데 대한 과업을 주신분도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이 땅우에 반드시 국력이 강하고 끊임없이 륭성번영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잘사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드팀없는 결심이고 의지이다.

지난 4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 관철에로 천만군민을 불러일으키시며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안아오고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받드는 길에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는것이 공화국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신념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고 그이의 령도를 한마음한뜻으로 받들어나가는 군대와 인민이 있는 한 이 땅에서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이 매일 매 시각 창조되게 될것이다.

리 어 금

자력갱생으로 번영의 활로를 열어제낀다

공화국에서 자력갱생의 기치밑에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가치있는 과학기술성과들을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이룩하고있다.

얼마전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서 인공잔디생산공정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훌륭히 꾸려놓았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자기 힘과 지혜로 새것을 탐구하고 창조해나가는 자력갱생의 투쟁기풍으로 높은 정밀도를 요구하는 설비와 부속품들을 제작하고 최신과학기술을 받아들여 잔디실의 굵기나 두께 등의 질적지표를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였다. 시험생산을 진행한 결과 인공잔디의 자름면이 세계적수준에 맞게 말발굽형으로서 잔디를 밟았을 때 다시 일어나는 회복탄성률이 100%에 이르렀다는것을 확증하였다.

단천광산설비부속품공장에서는 자체의 힘과 기술로 벨트콘베아굴개생산공정을 현대적으로 일떠세웠다.

절단으로부터 가공, 조립공정에 이르기까지 흐름식으로 된 생산공정은 종전보다 가공정밀도가 높고 생산능력이 대단히 큰것으로 하여 단천지구 광물생산기지들은 물론 채취공업부문 광산들에 필요한 벨트콘베아굴개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게 되였다.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각종 규격의 벨트콘베아굴개생산에서 패권을 쥘 자신만만한 배심에 넘쳐 본격적인 생산준비를 다그치고있다.

화학공업성에서는 석탄가스화에 의한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을 다그치고 촉매생산기지와 린비료공장건설, 회망초를 출발원료로 하는 탄산소다생산공정을 개건완비하는데 총력을 집중하고있다. 또한 석탄으로 비날론과 아닐론, 수지를 비롯한 각종 화학제품생산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수 있는 생산공정들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고있다.

유기복합미량원소비료의 도입이 세계적추세로 되고있는데 맞게 평양에네르기제품교류소에서는 무진장한 국내원료와 자원을 가지고 나노기술을 적용하여 만든 고농축유기광물질복합비료인 《강흥》액체복합비료를 새로 개발하였다.

각종 영양물질이 많이 포함되여있으며 식물이 쉽게 흡수할수 있어 정보당 알곡소출을 현저히 높일수 있는 이 비료를 여러 단위들에 도입해본데 의하면 알곡과 콩, 과일, 남새작물의 생산성이 110~115%이상 높아졌고 사철푸른 잔디를 비롯한 풀판조성에서도 그 효과가 뚜렷하다고 한다.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번에 개발한 액체복합비료는 세계적으로 효능이 제일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어느 한 나라의 유기광물질복합비료에 비하여 각종 다량원소들과 미량원소들이 상대적으로 많고 질소, 부식산, 아미노산함량이 높으며 정보당 수확고도 훨씬 더 높다고 한다.

지금 이곳 교류소의 일군들과 연구집단은 《강흥》액체복합비료를 연구완성한 토대우에서 도입면적을 더욱 확대해나가고있으며 농업생산을 적극 추동하는데서 그 우월성이 높이 발휘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평안남도체신관리국에서는 자체의 힘과 기술로 모든 기술적지표들이 선진수준에 확고히 도달한 새로운 지하케블탐지기를 새로 개발하였으며 서평양기관차대에서는 높은 용착세기를 요구하는 분기기의 철차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새로운 용착봉을 개발하였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 여러 단위들에서 이룩된 성과들은 자력갱생, 견인불발할 때 경제건설의 활로를 열고 훌륭한 미래를 앞당겨올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유 충 일

고암-답촌철길 개통식이 진행되였다.

민족문제해결의 주인은 북과 남이다

지난 4월 27일 대결과 분렬의 상징이였던 판문점에서 북과 남의 수뇌분들은 력사적인 회담을 가지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채택발표하였다.

랭전의 산물인 오랜 분렬과 대결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며 북남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져있는 판문점선언은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물론 전세계의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고있다.

지난 11년동안 불신과 대립, 파국상태에 빠져있던 북남관계를 한순간에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관계에로 극적전환시킨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리행하는것은 이제 우리 겨레모두의 의무이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에서 북과 남은 북남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나갈것이며 조선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나가는 동시에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나갈것을 확약하였다.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리행하는데서 선언에 밝혀져있는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이다.

온 민족과 세계앞에 약속한 판문점선언은 그 어떤 정세파동이나 주변환경에 구애됨이 없이 북과 남이 주인이 되여 일관하게 리행해나가야 하며 서로가 함께 그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번영을 이룩하고 북남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데서 주인은 다름아닌 우리 민족자신이다.

북과 남의 우리 겨레가 화해하고 단결하여 공동보조, 공동행동을 취한다면 그 어떤 복잡한 문제도 우리 민족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원만히 해결해나갈수 있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이후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운동에서 이룩된 사변적인 성과들은 민족자주의 기치밑에 우리 민족끼리 서로 뜻과 힘을 합칠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온 겨레가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할 때 외세의 간섭을 물리치고 평화번영의 앞길을 활짝 열어나갈 수 있다.

우리 민족의 전도와 운명문제는 그 주인인 북과 남이 힘을 합쳐 풀어나가면 전면적으로 해결될수 있으며 여기에 외세가 개입할 하등의 명분과 구실이란 있을수 없다.

그 어떤 천지풍파가 몰아치고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민족문제, 북남관계문제의 주인인 북과 남이 서로 손을 잡고 맞받아 뚫고나간다면 극복 못할 난관이란 있을수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에 천명된 민족자주의 원칙을 철저히 틀어쥐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기어이 평화번영, 조국통일의 새 아침을 맞이하고야말것이다.

김춘원

특등범죄자의 오만한 추태

최근 남조선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리명박역도에 대한 첫 공식재판이 진행되였다. 여기서 리명박역도는 모든 범죄혐의들을 전면부정하였다.

이날 역도는 《모두진술》이라는데서 《진실을 알리기 위해 법정에 나왔다.》고 하면서 주요범죄인 뢰물혐의를 강하게 부정하다 못해 제놈의 범죄사실을 폭로한 증인들을 《정신병자》로 몰아대였다.

그러면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하였다, 재판부가 객관적인 자료와 법리에 기초하여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떠벌이였다.

철면피의 극치이고 오만무례한 이 추태야말로 민심과 여론에 대한 참을수 없는 도전이 아닐수 없다.

알려진것처럼 명색이 전직 《대통령》인 리명박으로 말하면 뢰물수수혐의, 직권람용권리행사방해 등 16가지 범죄혐의로 구속기소된 특등범죄자이다. 재임기간 삼성전자 회장을 특별사면하고 청와대에 경제인들을 빈번히 끌어들이면서 리명박이 뢰물범죄를 저지른데 대해서는 이미 《리명박집사》로 불리운 전 《대통령실》 총무기획관이 명백히 자료를 진술한바 있다. 그런데도 자기의 죄악을 한사코 부정하면서 총무기획관의 진술자료내용은 허위이다, 그는 《정신병자》이다고 몰아대기까지 했으니 뻔뻔스럽고 무례하기 이를데 없는 역도이다.

이번에 검찰은 핵심범죄혐의인 다스회사의 실소유자의 혹에 대해서 명백히 립증하였다. 검찰은 맏형 리상은이 다스회사의 《바지회장》이라면 리명박은 《왕회장》이라는것, 리명박이 다스회사의 경영실태를 수시로 보고받고 비자금조성지시도 직접 주었다는것, 2012년 내곡동 특검때 리명박의 련락을 받은 아들 리시형이 증거인멸을 진두지휘하였다는것 등으로 다스회사의 실소유자가 다름아닌 리명박이라고 까밝혔다.

검찰이 명명백백한 증거자료와 증언들을 공개하자 리명박은 《거짓말이다.》, 《전혀 있을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였다.

지금 리명박역도는 건강상 리유를 핑계로 앞으로 예정된 재판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불출석사유서까지 제출하며 오만하게 놀아대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 각계층은 《리명박이 궤변으로 국민을 기만하고있다.》, 《리명박의 진술은 철면피와 자기합리화로 일관된 최악의 변명이다.》고 격분을 표시하면서 역도의 모든 범죄혐의들을 철저히 따져 징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있다.

그런데 민심의 이러한 규탄여론과는 반대로 홍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은 그의 범죄혐의에 동의할수 없다, 리명박과 박근혜가 공동의 적에게 똑같이 침해당하고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보복이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역도를 극구 비호해나서고있다.

이것이 지금 불는 불에 키질하는 격으로 되여 남조선 인민들의 분노를 더욱 치솟게 하고있다.

사실 리명박과 함께 공생하면서 정보원정치개입사건, 싸이버사령부의 대글공작사건, 보수단체불법지원사건 등 전대미문의 대죄악을 저지른 공범자집단이 바로 《자유한국당》이다. 그러니 온갖 부정부패를 일삼아온 리명박을 두둔하는데 열을 올리고있는 《자유한국당》의 추악한 망동이야말로 특등범죄를 저지른 공범자들의 단말마적광기라고밖에 달리 말할수 없다.

지금 남조선 각계층은 리명박에 대한 응당한 징벌과 함께 그 공범자집단인 《자유한국당》을 단호히 심판함으로써 이를 계기로 보수적폐를 철저히 청산할것을 한결같이 요구하고있다. 그리고 리명박역도를 재판정에 쇠고랑도 차지 않고 들어가게 하고 무례무도한 생주정을 받아준 남조선사법부에 대해서도 강한 회의심을 드러내고있다.

리명박과 같은 특등범죄자가 법정에서 오만방자하게 놀아대는 이 희비극을 더는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것이 남조선민심이다.

본사기자 김련옥

력사의 심판대에 오른 리명박역도

민심이 내린 준엄한 심판

지금 남조선에서는 얼마후 있게 될 지방자치제선거가 보름안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정당들과 후보들사이의 선거싸움이 더욱 치렬해지고있다.

더우기 이번 지방선거는 12명의 《국회》의원보충선거와 겹치고 다음기 《대통령》후보로 지목되는 인물도 7명이나 출마한것으로 하여 《작은 총선》, 《예비대선》성격이 강한 선거로 주목되고있으며 이는 각 정당들과 후보들사이의 싸움을 여느때없이 격화시키고 있다.

현재 력사적인 제3차, 제4차 북남수뇌상봉이 진행되고 그에 대한 남조선 각계층의 판심과 기대가 전례없이 높아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선거형세는 민주개혁세력에게 유리해지고있다. 이러한 정세흐름을 타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민주개혁세력들은 《자유한국당》패들을 반평화세력으로 몰아가는 한편 민심의 공감을 불러일으킬수 있는 각종 민생공약들을 내들면서 보수세력들을 압박하고있다.

급해맞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여당에 전패할수 있다고 아우성치면서 공화국의 주동적인 북남관계 개선조치들을 《위장평화공세》로 헐뜯어대고있는가 하면 그 무슨 《정권심판론》을 고취하면서 불리한 선거국면을 역전시켜보려고 최후발악하고있다.

보수세력들사이의 치렬한 개싸움도 벌어지고있다.

《자유한국당》패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지킬수 있는 적임자, 《정통보수》, 《진짜보수》는 바로 저들이라고 하면서 《바른미래당》을 두고는 《기존정당들에서 파생된 정체성이 모호한 정당》, 《뿌리가 명백하지 않은 가짜보수정당》, 《정계에서 정리되여야 할 소수정당》이라고 몰아대고있다.

반면에 《바른미래당》패들은 낡고 부패한 적폐정당인 《자유한국당》은 진정한 보수정당이 될수 없다, 《개혁보수》정당인 《바른미래당》만이 《보수재건》을 실현할수 있다고 하면서 맞불을 놓고있는가 하면 북남관계와 《선거법》개정 등 정치적현안문제들에서 《자유한국당》과는 다른 립장을 취하는 《차별화》전략으로 보수표를 저들쪽으로 끌어당겨보려고 시도하고있다.

가관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보수정당내부에서까지도 더러운 계파싸움이 그칠날 없어 민심의 지탄을 받고있는 것이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물론 온 겨레가 북남사이의 화해와 단합, 조선반도평화흐름을 악랄하게 헐뜯고있는 보수세력을 민족의 지향과 념원에 도전하는 《평화파괴세력》, 《전쟁세력》으로 규탄하고있다. 더우기 특등범죄자들인 리명박, 박근혜역도의 파렴치한 행태와 그를 비호두둔해나서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패당의 망동에 분격을 금치 못하면서 이번 지방선거를 《보수사형선거》로 만들겠다고 욱욱 벼르고있다. 오죽하였으면 보수세력내부에서도 지금의 선거형세와 동향을 두고 《경제와 안보를 살리는 보수란 말은 거짓이 되고말았다.》, 《보수가 통채로 망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것》이라는 목소리가 공공연히 울려나오겠는가.

최근 남조선에서 발표된 여론조사들에서도 절대다수의 남조선인민들이 보수패당을 배척한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바로 남조선민심의 준엄한 심판이다.

양준석

외세에 기생하는 매국노의 대결망동

최근 홍준표가 북남관계개선분위기를 해치고 조미대화국면을 파탄시키기 위해 비렬하게 책동하고있다.

지난 17일 홍준표는 《북미수뇌회담에 대한 요청사항》이라는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는 추태를 부렸다.

미국에 보내는 문서에는 회담에서 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수 없는 비핵화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는것, 미군감축이나 철수문제가 거론되여서는 안된다는것, 북의 생화학무기폐기와 《인권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것 등 7가지 요구사항이 들어있다.

홍준표는 문서를 공개하고나서 《북핵폐기를 위한 실질적진전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있다.》, 《대북제재를 푼다면 〈한〉반도에 최악의 재앙을 초래할것이다.》고 떠벌였다.

18일에는 인터네트에 《지금이라도 랭혹하게 북체제를 리해하고 랭철하게 대처해주기 바란다.》는 글까지 올렸다.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추악한 꼬락서니를 온 민족과 국제사회가 규탄하고 상전인 미국도 외면하고있다.

외세에 동족대결정책을 구걸하는 홍준표의 반역행위는 100여년전 일신의 안일과 영락을 위해 나라를 외세에 팔아먹은 《을사오적》의 죄행을 련상케 하고있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 각계는 홍준표를 두고 《정치인으로서 초보적인 자격이 없는자이다.》, 《대세의 흐름에 대한 정치적감각조차 없는 사람이 당대표라는게 리해가 되지 않는다.》, 《민심을 읽지 못하는자가 정치를 하면 얼마나 하겠는가.》, 《차라리 입닥치고 제집 지키는게 낫겠다.》 등으로 강력히 단죄하고있다.

본사기자

반역무리의 필사적 몸부림

최근 남조선의 《자유한국당》대표 홍준표를 비롯한 보수패당들이 제4차 북남수뇌상봉과 공화국의 북부핵시험장폐기의식에 대해 《내용없는 만남》, 《사기쇼일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등 객적은 나발을 불어대며 터무니없는 비방중상에 열을 올리고있다.

이것은 민족의 특대사변앞에 넋을 잃은 정신병자들의 히스테리적발작증이며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 공화국의 일관한 의지와 선의의 노력을 가리워보려는 반역배들의 극악한 대결광기가 아닐수 없다.

지금 온 겨레는 물론 국제사회가 제4차 북남수뇌상봉과 공화국의 북부핵시험장폐기의식을 초미의 관심속에 지켜보고 열렬한 지지환영을 보내오고있다.

제3차 북남수뇌상봉이 있은지 한달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제4차 북남수뇌상봉은 조선반도의 북과 남이 민족문제해결의 주인이 되여 평화와 통일의 길로 확신성있게 나아가고있음을 다시금 뚜렷이 과시한 특기할 사변이였다.

그런데 이러한 민족사적 특대사변에 감히 삿대질하며 악랄한 비방중상만을 일삼고있는것은 결국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바라지 않는 《자유한국당》의 체질적인 동족대결광증만을 만천하에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언제 한번 바른 일 한적이 없이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의 흐름을 가로막고 동족에 대한 불신과 적대의 분위기를 고취하는데만 미쳐날뛰여온 겨레의 한결같은 비난과 규탄을 받고있는 무리가 바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역적패당이다.

온 세계가 찬탄하여마지 않는 북남수뇌분들의 전격적이고 경이적인 상봉과 회담을 《깜짝쇼》, 《핵심이 빠진 회담》이라고 헐뜯으며 분별없이 날뛰는 보수패당의 망동은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거세찬 파도에 휘말려 마지막숨을 몰아쉬는 반역무리들의 필사적몸부림일뿐이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전격적으로 진행된 공화국의 북부핵시험장폐기의식을 놓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패당들이 주제넘은 횡설수설을 늘어놓는것 또한 가긍하기 짝이 없다.

묻건대 《자유한국당》과 같은 보수패당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진정 해놓은것이 무엇이기에 그런 무엄한 궤변을 아무런 거리낌없이 늘어놓고있는가.

무엇 하나 해놓기는 고사하고 세상에 있어본적 없는 전대미문의 온갖 추악한 역적짓만 일삼아온 악성대결병에 걸린 비루한 송사리무리가 물고 늘어지는데는 얼마나 극성인지 참으로 보기가 민망스러울 지경이다.

그러한 인간추물들이기에 얼마전 《자유한국당》대표 홍준표를 비롯한 보수패당은 미국상전에게 《대북》압박강화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이라는것을 발표하는 망동도 서슴지 않은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조차 제대로 볼줄 모르고 오로지 동족대결에만 매달려 살구멍을 찾는 《자유한국당》의 진면모이다.

하기에 오늘 남조선 각계층은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반민족적망동을 두고 《전세계가 조선반도평화를 지지하는데 정작 〈자유한국당〉같은 보수세력만 반대한다.》, 《늪에 빠졌을땐 허우적댈수록 더 깊이 빠진다.》, 《그 치졸함과 옹졸함은 눈 뜨고는 못 봐줄 지경이다.》, 《국제적망신을 초래하는 일이다.》라고 하며 홍수같은 비난과 저주를 퍼붓고있다.

현실은 《자유한국당》대표 홍준표를 비롯한 보수역적패당이야말로 북남관계개선과 민족의 화합을 달가워하지 않고 기어코 가로막아나서는 반역무리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조선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이러한 악성종처를 제때에 들어내야 한다는것이 오늘 남조선민심의 한결같은 요구이다.

박철룡

판문점선언에 역행하는 군사적도발행위

지난 4월에 이어 5월에 전격적으로 진행된 제4차 북남수뇌상봉으로 하여 북남관계개선과 나라의 평화통일에 대한 우리 겨레의 기대와 열망은 더욱 높아지고있다.

그러나 남조선에서 대세의 흐름에 배치되는 위험한 군사적움직임이 보이고있어 내외의 큰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얼마전 남조선군부당국은 6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미국이 주도하고 20여개의 추종국가들이 참가하여 하와이주변해상에서 벌리는 《림팩》련합해상훈련에 3척의 함정과 항공기, 700여명의 병력을 파견하였다.

이것은 날로 높아가는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긴장완화흐름에 장애를 조성하는 불순한 행위이며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에 역행하는 군사적도발책동이다.

북과 남이 힘을 합쳐 평화와 통일에로 나가자면 상대방을 자극하고 위협하는 군사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한 행동은 어렵게 마련된 긴장완화의 분위기를 해치고 불신과 대결만을 조장하게 된다.

미국이 추종국가들을 동원하여 태평양상에서 정기적으로 벌리고있는 《림팩》합동군사연습의 기본과녁은 공화국이다.

《림팩》합동군사연습이 조선반도유사시 추종국가들까지 동원하여 공화국에 대한 해상봉쇄와 선제타격을 가하기 위한 전형적인 북침전쟁연습이라는것은 이미 날날이 드러났다.

남조선군부당국이 이러한 전쟁연습에 많은 무력을 투입하고있는 그자체가 공화국에 대한 도발이며 도전이 아닐수 없다.

북과 남은 판문점선언에서 새로운 평화시대가 열리였음을 엄숙히 천명하면서 조선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나갈데 대하여 합의하였다.

하지만 남조선군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연습에 참가하기로 함으로써 판문점선언에 역행하고있다.

긴장조성에로 이어지는 전쟁연습은 평화와 량립될수 없다.

오는 8월에도 남조선당국은 미국과 야합하여 대규모적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려 하고있다.

이것은 힘으로 동족과 대결하려는 범죄적흉계의 산물로서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 우리 겨레와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북과 남이 조선반도에 조성된 긴박한 정세를 완화하고 관계개선을 위한 좋은 합의를 이룩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저절로 리행되는것은 아니다.

북남관계의 불미스러운 력사를 돌이켜볼 때 상대방을 반대하는 임의의 도발행위도 정세발전에 엄중한 후과를 초래할수 있다. 판문점선언을 성실히 리행하는것은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청산하고 관계개선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남조선군부세력은 겨레의 지향과 념원을 똑바로 보고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는 도발행위를 그만두어야 한다.

박영일

일본의 불안은 누구때문인가

세인의 시선이 조선반도에 쏠려있는 지금 격변하는 정세흐름에 제일로 안절부절못하고있는 나라가 일본이다. 세상밖으로 밀려나는 위구와 불안때문이다. 그 누가 가져다준 위구와 불안인가. 바로 일본이 자초한것이라는데 세상의 웃음거리가 있다.

얼마전 일본수상 아베는 로씨야에서 진행된 국제경제연단에 참가하여 《북조선》이 옳바른 선택을 할수 있도록 모든 관련국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 《북조선》이 유엔안보리 《결의》를 리행하고 완전한 비핵화와 일본인 《랍치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고아댔다.

또한 로씨야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가장 중요한것은 《북조선》의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리행이다, 모든 관련국이 《북조선》에 분명한 신호를 보내면서 단일한 립장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떠들어댔다.

그런데 이를 바라보는 세인의 눈길은 조소로 가득차있다.

대세가 어떻게 변하고 남들이 무엇을 생각하고있는지도 모르고 돌아치는 그 모양새가 참 꼴불견이기때문이다. 명분도 자격도 극히 없는 일본이 세계를 싸다니며 《최대압박공조》를 구걸하고 반공화국대결책동에 매달리고있는 모습이 세인의 눈에는 비루먹은 동네개로밖에 보이지 않을것이다.

아베에 앞서 일본외무상 역시 워싱톤에서 미국무장관을 만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북미정상회담을 할 의미가 없다.》고 떠벌이면서 대조선압박의 도수를 높여야 한다고 지껄여댔다.

제 푼수도 모르고 삐칠데 안 삐칠데 함부로 코를 들이미는 일본을 두고 세계가 뭐라고 하는가. 미련한 주구, 삽살개로 조롱규탄하고있다. 그도 그럴것이 한사코 헌법을 뜯어고쳐 《전쟁가능한 국가》로 만들기 위해 모지름을 쓰는 일본이 그 누구의 《위협》을 운운하는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 아닐수 없다. 그 주제에 공화국의 북부핵시험장폐기에 대해 《풍계리핵시험장폐기가 쇼로 끌나선 안되며 북조선의 완전비핵화를 위한 확실한 단계로 되여야 한다.》고 악담질까지 해대고있으니 철면피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이미 해결된 일본인 《랍치문제》에 대해 얼토당토않게 떠들고있는 일본을 두고도 눈길이 싸늘하다. 일본인 《랍치문제》를 떠들기 전에 일본은 과거 조선을 강점하고 조선민족에게 참을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전대미문의 죄악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하는것이 마땅하다.

뻔뻔스러운 일본이니 창피도 느낄줄 모르는것 같다.

얼마전 미국대통령이 조미수뇌회담취소에 대해 떠들었을 때 국제사회가 한결같이 이에 반대하였지만 유독 일본만이 지지를 표명하였다. 그것도 형세가 달라지자 다시 《회담실현을 강하게 기대》한다고 돌변함으로써 세인을 아연케 했다.

제 주견이란 꼬물만큼도 없는 허수아비, 주인의 말을 무력대고 따라외우는 앵무새, 조석으로 변하는 카멜레온이라는 신랄한 야유조소가 일본에로 비발쳤다.

남을 물고늘어지는 고약한 악습을 가진데다가 약삭바르기란 이를데 없는 일본, 철면피한데다가 머리속엔 온통 군국주의부활과 시커먼 재침의 야망만 가득차있는 일본을 과연 누가 좋아하겠는가. 그러니 세인의 랭대와 조소를 받을수밖에.

리명진

주 소 : 평 양 통 일 신 보 사 (해외동포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289 편 집 위 원 회